

확장된 TPB 모형을 활용한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의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 특성의 조절 효과를 포함하여-

윤병화¹, 이상직^{2*}

¹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²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Baby Boomer's Reemployment Intention Using Extended TPB Model -Includ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Byung-Hwa Yune¹, Sang-Jik Lee^{2*}

¹Ph.D. Candidate, Dept. of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 약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이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를 위해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extended TPB)을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의 독립변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변인에 결과기대와 경제적 준비도를 추가하였다. 종속변수는 재취업 의도로 설정하였다. 이들 간의 조절변수로 개인 특성을 설정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베이비 부머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SPSS24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 결과기대는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경제적 준비도는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관적 규범은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유의한 변인중 경제적 준비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 특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친화력과 성실성 모두 태도와 재취업 의도, 결과기대와 재취업 의도간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학술적인 시사점 및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베이비 부머, 재취업 의도, 계획된 행동이론, 결과 기대, 경제적 준비도, 개인 특성, 조절효과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baby boomers' reemployment intentions.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as a research model used in this study. The extended TPB added outcome expectations and economic prepara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Personal characteristics were set as a moderating variable and reemployment intention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of 250 baby boomers for the established research model, an empirical test was conduct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empirical testing are as follows.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outcome expectation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baby boomer's reemployment intention. On the other hand, economic prepara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Social norms have not been tested for significant influence relationships. Among the significant variables, economic preparation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The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both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were found to play a role in moderating between attitudes and reemployment intention, between outcome expectations and reemployment intentio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baby boomer's reemployment were presented.

Key Words : baby boomer, reemployment intentions,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outcome expectations, economic preparation, personal characteristics, moderating effects

*Corresponding Author : Sang-Jik Lee(ls9669@naver.com)

Received March 28, 2021

Accepted May 20, 2021

Revised May 11, 2021

Published May 28, 2021

1. 서론

720만명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출생 코호트를 기준으로 베이비 붐 세대를 1955년에서 1963년생까지의 9년간 출생자를 1차 베이비 부머로 일컫는다. 이들 베이비 부머의 대규모 은퇴와 이로 인한 생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의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 보장 비용의 증가와 생산성 약화, 소비 저하에 따르는 내수 시장 위축 등 그 파장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한 후 다양한 유형의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있다. 즉, 재취업 유형, 창업 유형, 프리랜서 유형, 완전 은퇴 유형 등이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생계형 창업마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본인의 경력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Park et al.(2020)는 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취업을 선호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였다[1]. 이제 베이비 부머들에게 있어서 재취업은 매우 중요한 어젠다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어젠다임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몇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 필요성을 비롯하여 포괄적인 차원에서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 관련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재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들 요인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미미하며, 그나마 합의된 결과도 출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Kang(2016), Kang(2018) 등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필요성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2-3]. 둘째, 베이비 부머에 대한 연구들 중 상당 부분이 현상 진단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4]. 따라서 학술적인 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틀에 토대를 둔 연구들이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인간 행동 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고전적인 이론인 계획된 행동이론(TPB)을 적용하고자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 이론을 적용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다만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 특성을 고려하여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변수를 추가하여 확장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 모델을 기반으로 실증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향 요인 변수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모형 설정과 실증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 부머 재취업 관련 연구를 함에 있어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이나 베이비 부머 재취업 교육과 같은 현업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베이비 부머와 재취업

베이비 붐(Baby-boom)은 사회적 용어로 특정한 시기에 출산이 집중적으로 늘어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전적 정의로 베이비 붐은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공통된 시기의 사회적 경향으로, 출생률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한다[5]. 베이비 부머(baby boomer)란 이 시기에 출생한 인구집단을 통칭한다.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출생 시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55년에서 1963년생까지의 출생자를 베이비 부머로 일컫는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은퇴하기에는 이른 나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인생 1막의 장소를 떠나야하는 현실에 놓여있는 세대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등의 조사에 의하면 베이비 부머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일하길 원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인 이유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유를 갖고 있다고 한다[6]. 재취업자 중 36.2%는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28.7%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Kang(2016)는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할수록, 현업에서의 근무기간이 길수록 재취업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노후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의 재취업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2]. Kang(2018)은 베이비 부머들의 재취업 영향 요인 연구에서 경제적 준비도와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의도는 부(-)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경제적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 이는 경제적인 요인이 재취업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Song & Won(2020)은 근로 여부에 따른 베이비 부머의 우울,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근로를 하는 집단이 근로를하지 않는 집단 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다. 또한, 근로를 하는 베이비 부머 보다는 그렇지 않은 베이비 부머의 우울의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

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베이비 부머의 우울 감소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보호 요인으로써 근로 활성화를 통해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 부머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7]. 이와 같이 베이비 부머에게 있어서 일은 경제적인 욕구 충족 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2 확장된 TPB 모형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Ajzen(1991)이 제시한 이론이다[8]. 그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 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태도(attitude)란 특정 행동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특정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역으로 하게하는 일종의 사회적 압력이다. 지각된 행동통제 역시 인지된 혹은 지각된(perceived)것으로 어떤 일을 자신의 의지하에 통제할 수 있어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3가지 요인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특정 행동을 할 의도가 높아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후속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많은 연구들이 계획된 행동이론을 지지하지만,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들 3가지 변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2가지만 혹은 1가지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실증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선행 연구 결과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한 3가지 변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행동 유형이나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9, 10]. 3가지 변인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가지중 하나 혹은 2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하는 3가지 변인을 독립 변수로 사용함과 동시에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변인을 추가하였다.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TPB 변인이외에 경제적 준비도와 결과 기대를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모형을 확장하였다. 사회인지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동시에 자신의 노력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때 더 많은 시도를 한다고 한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Lent et al.(2019)은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 SSCT)에서 결과기대가 직업 흥미를 통해 수행 수준을 높인다고 하였다[12]. 이러한 결과 기대(outcome expectations)는 특정 행동이나 행동 과정상에서 나타나게 될 성과 결과에 대한 믿음이다. Jun et al.(2018)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결과 기대가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기대는 직무성공에 정(+)의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13].

한편, 노후지원법에 의하면 경제적 준비도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14].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사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Kang(2016), Kang(2018) 등 선행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준비도와 재취업 의도간 인과 관계가 있으며, 대체로 부(-)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경제적 준비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은퇴후 재취업 의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3].

2.3 조절변수 : 개인특성

창업 내지 재취업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성격 5요인이 개인의 행위 의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히고 있다[15-17].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자 했다. 성격 5요인은 신경증(Neuroticism), 개방성(Openness), 친화성(Agreeableness), 외향성(Extroversion), 성실성(Conscientiousness)이다. 이를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Zhao et al.(2010)에 의하면 친화성, 성실성 등이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16]. 행위 의도 형성에서 개인 특성을 조절 변수로 연구한 Ko(2019)의 경우 성실성과 친화성이 조절 역할을 하는것으로 밝혔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성격 특성이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간 조절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격 5유형중에서 Ko(2019)의 연구 결과와 같이 친화성과 성실성만 추출하여 살펴 보았다[18].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요인 간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 모형은 Fig1.과 같다. 연구 모형은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TPB)으로 기존의 TPB에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기대와 경제적 준비도를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개인 특성 Big5중 친화력과 성실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최종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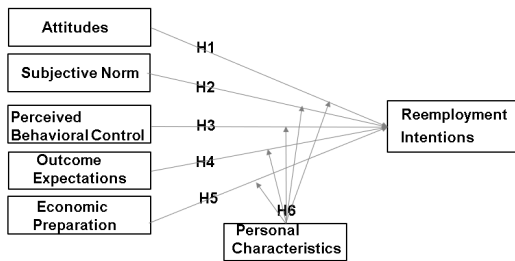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 설정

이론적 배경에서도 논의했듯이 Ajzen(1991)에 제시한 계획된 행동이론(TPB)에 의하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8].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이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연구 결과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한 3가지 변인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행동 유형이나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9, 10].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제시한 3가지 변인이 모두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한편, 새롭게 추가된 경제적 준비도는 대체로 재취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2-4, 19].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 SSCT)의 독립변수인 결과기대는 대체로 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 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태도는 베이비 부머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주관적 규범은 베이비 부머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지각된 행동통제는 베이비 부머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결과 기대는 베이비 부머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경제적 준비도는 베이비 부머 재취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성격 요인을 조절변수로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 성격요인이 독립변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17]. Ko(2019)의 경우 성격 요인을 조절변수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개인 특성 변수중 친화성과 성실성이 조절역할을 한다고 하였다[18]. 이와같이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개인 특성 변수를 조절변수로 활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1 개인특성 중 친화력은 베이비 부머의 태도와 재취업 의도 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2 개인특성 중 친화력은 베이비 부머의 주관적 규범과 재취업 의도 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3 개인특성 중 친화력은 베이비 부머의 지각된 행동 통제와 재취업 의도 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4 개인특성 중 친화력은 베이비 부머의 결과기대와 재취업 의도 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5 개인특성 중 친화력은 베이비 부머의 경제적 준비도와 재취업 의도 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6 개인특성 중 성실성은 베이비 부머의 태도와 재취업 의도 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7 개인특성 중 성실성은 베이비 부머의 주관적 규범과 재취업 의도 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8 개인특성 중 성실성은 베이비 부머의 지각된 행동 통제와 재취업 의도 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9 개인특성 중 성실성은 베이비 부머의 결과기대와 재취업 의도 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10 개인특성 중 성실성은 베이비 부머의 경제적 준비도와 재취업 의도 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3.3 설문 설계 및 조사

본 연구에서는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를 베이비 부머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and Measurement Items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Measurement Items
Independent Variables	Attitudes	The level of negative or positive evaluation of the specific behavior	4
	Subjective Norm	Not doing or doing anything under social influence	4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he degree of belief in control certain things under his / her own will and easily act on them.	5
	Outcome Expectations	Belief in the outcome and consequences of a particular action or course of action	4
	Economic Preparation	Preparation for maintaining a stable retirement life by calculating the living funds and expected income for retirement	4
Moderating Variables	Agreeableness	The degree to interest in others and maintain a harmonious relationship	5
	Conscientiousness	The degree to fulfill responsibilities, subjective norms and rules	5
Dependent Variable	Reemployment Intentions	Retiring due to various reasons and willingness to resume employment	4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였다. 총 265부 중에서 유효한 250부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가설 검정은 SPSS24와 Macro Process 3.5를 활용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 활용된 연구 변인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수이다.

4. 연구 결과

4.1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측정항목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주성분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varimax 방식을 채택하였다. 고유값은 1.0 이상 중 요인 적재치 .6이상을 연구 변수로 선택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모형의 적합성은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이용하였다[22]. 본 연구의 경우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KMO는 .908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은 유의확률 .000에서 4975.9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된 총 분산은 75.569%로 70%이상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연구 모형과 동일하게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들이 잘 묶였다. 다만, 경제적 준비도의 4개 문항 중 1개 문항과 주관적 규범 1개 문항은 잘 묶이지 않아 제거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요인 분석 결과 제거된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Cronbach의 α 계수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준비도 .718, 재취업의도 .963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718부터 .963 사이로 나타났다. 신

뢰도의 유의성 판단은 Cronbach's α 계수값으로 한다. 이 값이 .6을 넘을 경우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2]. 본 연구의 경우 모든 변인이 .6을 넘었다. 따라서 본 연구 변수의 집중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다.

4.2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 간 상관 관계가 .577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머지 변인 간 상관관계는 이 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준비도의 경우는 다른 변인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4.3 인과 관계 가설 검증 결과

이와 같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연구 변수를 바탕으로 인과 관계를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회귀모형은 R값이 .640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설명력은 39.4%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F값이 27.02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간 다중 공선성을 VIF로 검증한 결과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용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바탕으로 SPSS24를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인과관계 가설검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태도는 $\beta = .219, p < .01$ 로 베이비 부머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1. 태도는 베이비 부머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주관적 규범은 $\beta = .051, p > .05$ 로 베이비 부머 재취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가설2. 주관적 규범은 베이비 부머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각되었다. 지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Factors	Variables	Factor Loading	Total Variance % (Cumulative)	Cronbach's α
Reemployment Intentions	rei3	.893	12.057	.963
	rei1	.872		
	rei4	.872		
	rei2	.870		
Conscientiousness	pts1	.800	23.463	.899
	pts3	.794		
	pts4	.748		
	pts2	.695		
	pts5	.666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eff2	.818	34.684	.901
	eff3	.797		
	eff1	.727		
	eff4	.687		
	eff5	.687		
Agreeableness	ptc3	.855	44.968	.890
	ptc4	.801		
	ptc2	.751		
	ptc5	.674		
	ptc1	.651		
Outcome Expectations	oe2	.771	53.967	.902
	oe3	.761		
	oe4	.748		
	oe1	.691		
Attitudes	att2	.852	62.669	.786
	att3	.739		
	att1	.716		
	att4	.684		
Subjective Norm	sn2	.842	70.280	.871
	sn3	.778		
	sn1	.733		
Economic Preparation	ep3	.845	75.569	.718
	ep2	.743		
	ep1	.602		
Kaiser-Meyer-Olkin : .908, Bartlett Test : χ^2 4975.985(P=.000)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Attitudes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utcome Expectations	Economic Preparat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Reemployment Intentions
Attitudes	1							
Subjective Norm	.577**	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296**	.356**	1					
Outcome Expectations	.334**	.393**	.569**	1				
Economic Preparation	-.275**	-.370**	-.336**	-.363**	1			
Agreeableness	.329**	.351**	.563**	.523**	-.263**	1		
Conscientiousness	.375**	.393**	.620**	.555**	-.211**	.578**	1	
Reemployment Intentions	.433**	.410**	.430**	.454**	-.500**	.378**	.370**	1
**, significant at the 0.01 level(two-sided)								

Table 4.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Results
	B	β			
constant	1.524		2.605	.010	
Attitudes	.300	.219	3.208	.002	supported
Subjective Norm	.076	.051	.714	.476	not supporte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181	.150	2.179	.031	supported
Outcome Expectations	.253	.162	2.312	.022	supported
Economic Preparation	-.370	-.311	-5.036	.000	supported
Statistics	R : .640, R2 : .409, Adjusted R2 : .394, F : 27.025(P = .000)				

Table 5.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Path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β	t	LLCL	ULCL	statistics	β	t	LLCL	ULCL	statistics
Attitudes -> Reemployment Intentions	Attitudes	.794	7.210	.577	.881	$\Delta R^2 = .041$ F = 10.939 P = .001	.722	6.194	.492	.952	$\Delta R^2 = .017$ F = 4.234 P = .041
	Moderator	.653	.070	.403	.767		.159	1.221	-.098	.415	
	Interaction	-.566	-3.307	-.904	-.229		-.378	-2.058	-.741	-.016	
Subjective Norm -> Reemployment Intentions	Subjective Norm	.712	5.594	.461	.963	$\Delta R^2 = .014$ F = 3.402 P = .064	.653	5.201	.405	.901	$\Delta R^2 = .003$ F = .814 P = .368
	Moderator	.321	2.631	.080	.561		.124	.908	-.145	.392	
	Interaction	-.364	-1.861	-.749	.022		-.193	-.902	-.614	.229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Reemployment Intention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425	3.950	.213	.637	$\Delta R^2 = .002$ F = .591 P = .443	.491	4.622	.281	.700	$\Delta R^2 = .001$ F = .258 P = .612
	Moderator	.178	1.368	-.079	.434		-.022	-.155	-.303	.259	
	Interaction	.132	.768	-.206	.470		.091	.508	-.263	.445	
Outcome Expectations -> Reemployment Intentions	Outcome Expectations	.509	4.152	.267	.751	$\Delta R^2 = .018$ F = 4.673 P = .032	.575	4.726	.355	.814	$\Delta R^2 = .016$ F = 4.034 P = .046
	Moderator	.149	1.181	-.100	.399		-.059	-.427	-.332	.214	
	Interaction	.493	2.162	.043	.943		.481	2.008	.009	.953	
Economic Preparation -> Reemployment Intentions	Economic Preparation	-.669	-5.611	-.904	-.434	$\Delta R^2 = .005$ F = 1.422 P = .234	-.561	-5.733	-.754	-.368	$\Delta R^2 = .000$ F = .049 P = .825
	Moderator	.269	2.300	.038	.499		.187	1.528	-.054	.427	
	Interaction	.181	1.193	-.118	.480		-.033	-.222	-.327	.261	

각된 행동 통제는 $\beta = .150, p < .05$ 로 베이비 부머 재취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3. 지각된 행동통제는 베이비 부머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 되었다. 결과기대는 $\beta = .162, p < .05$ 로 베이비 부머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4. 결과기대는 베이비 부머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 되었다. 경제적 준비도는 $\beta = -.311, p < .01$ 로 베이비 부머 재취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5. 경제적 준비도는 베이비 부머 재취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 관계 크기는 다음과 같다. 즉, 경제적 준비도($\beta = -.311$) > 태도($\beta = .219$) > 결과기대($\beta = .162$) > 지각된 행동통제($\beta = .150$) 순이었다. 이상의 인과 관계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 결과기대는 베이비 부머 재취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준비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규범은 재취업 의도와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유의한 영향 관계를 나타낸 변수 간 영향력을 표준화 계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준비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조절효과 가설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조절 효과를 분석 하였다. Bootstrapping 방식으로 검정을 하였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 작용항이 유의한지 여부 위주로 분석을 하였다. Bootstrapping 방식은 데이터의 정규 분포를 가정하지 않으며, 신뢰구간 및 오차를 추정하는 방식이다[22]. 상호 작용 항(독립변수 x 조절변수)의 신뢰 구간(CI : confidence interval)을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설정한 다음, 이 둘 사이에 0이 존재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만약 두 구간사이에 0이 존재한다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0이 존재하지 않은다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23].

Table 5는 친화성과 성실성의 조절 효과 분석결과이다. 먼저 개인특성 중 친화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태도와 친화력의 상호작용항이 유의(위의 기준에 의해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0이 없음)하고 또한 R 제곱의 변화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결과기대와 친화력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고 또한 R 제곱의 변화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변인에서는 유의한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6-1 개인특성 중 친화력은 태도와 재취업 의도 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또한 가설 6-4 개인특성 중 친화력은 결과 기대와 재취업 의도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반면 가설 6-2, 6-3, 6-5는 기각되었다.

한편, 개인특성 중 성실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태도와 성실성의 상호작용항이 유의(위의 기준에 의해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0이 없음)하고 또한 R 제곱의 변화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결과 기대와 성실성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고 또한 R 제곱의 변화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변인에서는 유의한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6-6 개인특성 중 성실성은 태도와 재취업 의도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가설 6-9 개인특성 중 성실성은 결과 기대와 재취업 의도 간 조절역할을 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반면 가설 6-7, 6-8, 6-10은 기각되었다.

4.5 가설 검정 결과에 대한 논의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 준비도와 결과 기대 변인은 베이비 부머의 재취

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경제적 준비도는 베이비 부머 재취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변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결과 기대 변인은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의도는 노후 준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할수록 재취업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한국의 베이비 부머들은 재취업을 본인 경제활동의 연장선상에 놓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베이비 부머 관련 연구에서는 경제적 준비도 변인을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Kang(201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3]. 한편, 결과기대는 특정 행동이나 행동 과정상에서 나타나게 될 성과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재취업의지가 높아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회인지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 SSCT)의 설명변수인 결과기대는 대체로 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Lent et al.(201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20].

둘째,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 역시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주관적 규범은 유의한 영향관계가 본 연구에서는 검정되지 않았다. 계획된 행동이론이 발표된 이후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한 3가지 변인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행동 유형이나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9, 10]. 3가지 변인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가지중 하나 혹은 2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11]. 본 연구도 후속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도입한 개인특성 중 친화력과 성실성은 태도 및 결과기대와 재취업의도 간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Ko(201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18].

5. 결론

본 연구는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이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의도에 미치

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를 위해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xtended TPB)을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의 독립변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변인에 결과기대와 경제적 준비도를 추가하였다. 종속변수는 재취업 의도로 설정하였다. 이들간의 조절변수로 개인특성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베이비 부머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SPSS24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결과기대는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정(+),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경제적 준비도는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관적 규범은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유의한 변인중 경제적 준비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 특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친화력과 성실성 모두 태도와 재취업의도, 결과기대와 재취업의도 간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적인 시사점은 첫째,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계획된 행동이론에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결과기대와 경제적 준비도를 추가하여 확장된 TPB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기존의 TPB 모형 역시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입한 결과기대, 경제적 준비도 역시 설명 변인으로 유용함을 검증하였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경제적 준비도가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향후 베이비 부머 재취업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개인적 특성 요인이 선행변수와 재취업의도간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재취업의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실무적인 시사점은 첫째, 경제적 준비도가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아실현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경제적인 필요성에 의한 재취업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취업관련 정책수립이나 교육등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동시에 재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본 연구 변인 이외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베이비 부머들의 개인특성, 태도, 결과기대와 같은 심리적인 동기도 중

요한 요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역시 정책 수립이나 베이비 부머 재취업 관련 교육등에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5.2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유용한 학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재취업의도와 재취업행동간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취업의도가 있으면 재취업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재취업행동을 종속변수로 놓고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격의 5요인 중 친화성과 성실성만 연구 변수로 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5개 요인을 모두 연구 변수로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셋째,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 기대와 경제적 준비도만 추가 연구 변수로 채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된 연구 설계와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진행중일 때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강한 외생 요인이 제거되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J. B. Park, Y. S. Yang & M. S. Kim. (2020). The Effect of Active Senior's Career Orientation and Educational Entrepreneurship Satisfaction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Preparation Behavio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1), 285-301.
- [2] S. H. Kang. (2016). A Study on Reemployment Determinants, Job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of the Aged.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9(3), 117-140.
- [3] K. L. Kang. (2018).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Reemployment Intentions of the Baby-Boom Generation*,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4] B. H. Yune & S. J. Lee(2020). Factors Affecting Reemployment Intention of the Baby Boome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4), 57-68.

- [5]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2006), *Encyclopedia of Population*.
- [6] Mirae Asset Research Institute. (2019). *5060 Jobs Nomads are Coming: 5060 Retired Reemployment Path Analysis*. Seoul : Mirae Asset Research Institute.
- [7] I. U. Song & S. J. Won. (2020). Self-Rated Health,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Babyboomers in Korea: Multiple Group Analysis according to Their Work Statu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6), 349-357.
- [8] I. Ajzen.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0.
- [9] N. Tiraieyari & S. E. Krauss.(2018). Predicting Youth Participation in Urban Agriculture in Malaysia: Insights from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Functional Approach to Volunteer Motivation.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35, 637-650.
- [10] Z. Xu, J. Shan, J. Lia & W. Zhang.(2020).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Predict Public Participation Behavior in Air Pollution Control: Beijing, China.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63(4). 669-688.
- [11] B. K. Jang & S. J. Kim. (2019). Testing a Predicting Model of College Students' Exercise Behaviors using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8(3). 93-108.
- [12] R. W. Lent, T. R. Morris, L. T. Penn, & G. W. Ireland.(2019). Social-cognitive Predictors of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 Longitudinal Test of the Career Self-management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6(2).184-194.
- [13] S. Y. Jun, J. W. Han, K. H. Park & H. N. Lee.(2018). The Effect of Mentoring Function on Job Motivation and Nursing Performance with a Focus on the Mediated Effect of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2(3). 41-52.
- [1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2015). *Act of Elderly Supporting*.
- [15] S. A. Ettis & M. K. Kefi.(2016).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ongst Tunisian Students: An Empirical Investigation Applying the Big-five Personality Traits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Management*. 13(1). 49-64.
- [16] H. Zhao, S. E. Seibert & G. T. Lumpkin.(2010).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o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forman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36(2). 381-404.
- [17] D. Y. Chung & Y. H. Chae.(2015).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Korea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bout Personality Traits, Self-Leadership, Entrepreneurial Efficacy. *Proceedings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2378-2404.
- [18] Y. S. Ko.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g Five Factors of the Middle-Aged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Era of Convergence. *Korea Science & Art Forum*. 37(1). 1-12.
- [19] J. R. Lee & C. M. Heo. (2020). The Effect of Baby Boomer's Self-Efficacy, Social Capital, and Economic Prepar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0). 41-50.
- [20] R. W. Lent & S. D. Brown.(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568.
- [21] S. R. Um, H. R. Shin & Y. S. Kim(2021). The Effect of Online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3). 1-12..
- [22] J. P. Woo. (2017). *Concepts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Seoul : Hannarae Publishing Co.
- [23] A. H. Hayes.(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The Guilford Press.

윤 병 화(Byung-Hwa Yune)

[상위권]



- 2006년 2월 ~ 2008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석사
- 2008년 ~ 2010년 : 상공회의소 자문위원
- 2018년 2월 ~ 2021년 5월 : 호서대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 1989년 7월 ~ 현재 : (주)올리버통상

대표이사

- 관심분야 : 해외마케팅, 인사관리
- E-Mail : bobbyune@nate.com

이 상 직(Sang-Jik Lee)

[상위권]



- 1989년 : 영남대학교 경제학 석사
- 2002년 : 영남대학교 경제학 박사
- 2008년~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 2008년 ~ 2010년 : 한국조폐공사 경영자문위원
- 2009년 ~ 2010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상임이사

· 2010년 ~ 2011년 :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

· 2010년 ~ 2011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선위원

· 2016년 ~ 2017년 : 주택관리공단 자문위원

· 관심분야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국제경영관련, 사회 및 경제정책 등

· E-Mail : lsj9669@naver.com